

1면에서 계속

대각간 명문에 대해서 前 해 인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성공 스님은 "해인사 장건 설화에 나오는 '대각간 위홍'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문은 6월 중순경, 개금불사를 위해 윗쪽을 7번 한 상태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은 "명문의 발견으로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백제 목조 관음상을 만들었던 한국인의 예술적 기량이 9세기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높이 1.25m의 비로자나불좌상은 왼쪽 감지를 오른손으로 감싼 지권인을 하고, 가사를 왼쪽 어깨에만 걸친(우견편단) 모습이다. 가사의 주름은 평행 제단식으로 표현돼 있는데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모습이 유려하고, 반쯤 감은 눈과 어깨까지 드러워진 귀가 근엄하고 아름답다.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는 "비로자나불좌상의 얼굴이 신체에 비해 크다"고 지적하며 "이는 8세기 후반 9세기 전반의 특징적인 양식으로서, 우 주름이 유려하고 중단으로 돼 있는 것을 볼 때 9세기의 불상이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연대가 확인됨에 따라 경남 지정유형문화재 제41호였던 이 불상은 곧 국보로 승격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중분석, X레이 촬영 등 과학조사가 뒷받침 돼야 하고, 조성 당시의 원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해인사는 9월 1일부터 보경당에서 100일간 천견법회를 갖고, 10월에는 목조불상의 학술적 예술적 연구를 위한 학술대회 및 법회를 병행할 예정이다. 관련

불교는 '민속관' 기독교는 '종교관'에

2005 세계박물관박람회, 불교관련 전시 거의 없어...관계자 "편향의도 없다"

국내의 110여개 박물관·미술관이 참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2005세계박물관박람회에 '불교'는 없었다.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리고 있는 박람회는 국내사립박물관의 활성화와 박물관 문화 확산을 목표로 경기관광공사 등이 주최하고, 분당자연사박물관 등이 주관하고 있다.

개막 7일째를 맞은 7월 7일, 방학이 시작되지 않은 탓인지 아직 한산한 가운데, 22개국에서 총 110여개 박물관·미술관(국내 49개, 국외 65개)이 부스를 마련해 놓고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다양한 문

화' 가운데 불교문화를 찾아보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불교와 관련된 전시품을 접할 수 있는 곳은 목야박물관과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부스가 유일했다. 때문에 '박물관' '문화'라는 명칭에서 불교문화를 접할 수 없기를 기대하고 박람회를 찾은 이라든 낭패감을 느끼기 십상이었다.

9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 박람회에는 종교관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제성서박물관, 십자가박물관, 한국순례교회, 한국장로교회 등 기독교 계통 부스 일색이다. 유일하게 불교문화를 볼 수 있는 목야박물관이나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부스는 종교관이 아닌 민속관에 자

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보면 이번 박람회에서 불교계가 소외돼 있고, 더구나 불교는 종교가 아닌 민속신앙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박람회 실행위원회 관계자는 "사립박물관협회 등록된 모든 박물관에 공문을 보내 참가요청을 한 바 있다"며 "종교편향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종교관이 기독교 일색으로 꾸며진 것과 관련해 "기독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실행위원장 신승식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돼 '기독교문화선교관'이 마련됐으나, 박람회가 종교색을 띠는 것으로 오해받을까봐 종교관

으로 이름을 변경한 것"이라며 "종교관이 박람회의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한 관계자는 "국립박물관들이 참여하지 않는 데다, 박람회가 상업성까지 띠고 있어 성보박물관들이 참여할 만한 성격의 행사는 아니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세계박물관박람회와 특정 종교 위주로 진행되면 결국은 박람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천자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일이니만큼 박람회 기획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추진"

김재규 공단 이사장 공식언급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공식적으로 추진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재규 이사장은 7월 5일 보도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합리한 입장료 징수 실태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입장료나 받는 조직이라는 오해까지 생겼다"며 입장료 폐지를 공식화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한 실무자도 "공단은 원칙적으로 입장료 폐지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도 "2006년

예산이 입장료 징수를 전제로 편성된 만큼 당장 추진하기보다 2~3년 정도의 기간동안 불교계 등과 협의해 세부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스님은 "아직 공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단이 뭐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추후에 문화재관료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통플스테이 함께가요~"

민추본·대불청 금강산서 '통일 심성개발...' 개최

사상 처음으로 통일을 주제로 한 통플스테이가 열린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는 '통일 심성 개발 프로그램 제1회 통플스테이'를 오는 8월 13~16일 금강산 건봉사와 신계사 일원에서 진행한다.

청년불자 108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통플스테이는 △통일 발원문 쓰기 △통일 기원 108주 제기 △통일 명상 △공복 60주년 기념 남북청년불자 합동법회 및 통일기원 108배 정진 △남북

공동 산행 △통일기원 기념 식수와 탑 쌓기 등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통일 특강 △통일 3행시 짓기대회 △통일 끝내줄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김익석 회장은 "통일은 민족의 본래면목을 찾는 일"이라며 "통플스테이를 통해 분열과 분단을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통일 에너지'를 키워나갔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02)735-3724

유철주 기자

조계종 국제사이트

자문위원회 13명 위촉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7월 7일 한국불교

역사문화재단 4층에서 불교계 석학 및 지식인 13명으로 구성된 국제사이트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자문위원회 위촉장으로는 현 조계종 총무원 국제특보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이 위촉됐다. 정범 스님(불교신문사 주간)은 국제사이트 총괄운영팀장을 맡는다. 화랑(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지관 스님(김포 용화사 주지), 김봉래 회장(국제포교사회), 김상철 사무총장(한국외교협회), 김종걸 교수(하버드대), 박수호 책임연구원(사이버문화연구소), 브라이언 배리(국제포교사), 이동호 위원(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전현 교수(뉴욕주립대), 조은수 교수(서울대) 등으로 자문위원회도 구

성된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만행, 하버드에서 화제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은 그 자리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현재 자문위원은 총 13명이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제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 조언한다. 특히 문화나 아트 자문위원에 위촉됨에 따라 한국 불교를 빠르고 쉽게 전달할 방법을 찾는 일은 오롯이 자문위원회의 몫이다.

국제사이트는 올해 11월 1일 오픈할 예정이며 영어 일문어 중국어 3개 사이트로 구축된다.

이은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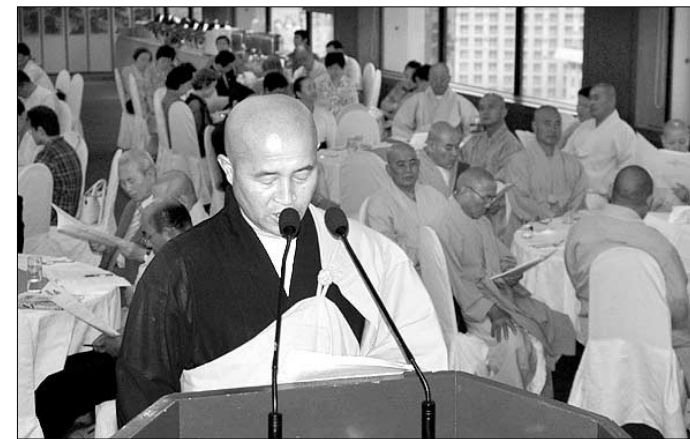
불교소송 잇따라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前 서산 간월암 주지 원승 스님이 제기한 '징계처분부효확인청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6월 30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도 조계종 내부판정기관의 하나인 소정심사위원회를 거친 '주지해임부효확인등 청구사건(문지사)'에 대해 6월 23일 '각하' 판결을 내리며 조계종 내부 결정을 존중했다.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 조계종 한 관계자는 "종단이 안정됨에 따라 종교 내부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을 자제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남동우 기자



10·27 법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이 정부 당국자에게 보내는 글을 낭독하고 있다.

"10·27 법난 진상 규명하라"

대책위 결성...위원장에 법타스님

5월 27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불교계 내부에서도 10·27 법난 진상규명 의지가 높은 가운데, 불교인권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는 7월 4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1980년 10·27 법난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법타결성식)'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상임대표 법타스님은 "2000년 한국불교사에 가장 처참한 수모를 안겨준 1980년 10·27 법난은 전두환 군부의 정치적 시나리오에 불교계가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과거사 청산을 위한 참여 정부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진상규명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타스님 인터뷰 14면**

당시 정부 중무실장이었던 한영수씨는 결성식에서 군부의 폭압적 불교유린행위를 증언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향후 10·27 법난연구소 발족, 불교피해자 진상조사(삼청교역대 포함), 각사찰 및 스님 탐방사색조사, 관련피해자 명예회복 추진, 국회 특별법제정 제안, 전국순회강연, 토론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사진·조용수기자**

"대학 혼란 막아야" 東大 교수들 '고언' 발표

동국대 정용길 교수 등 '원로교수 모임'이 최근 학내 문제와 관련, 이사장 현해 스님과 홍기삼 총장에게 드리는 고언을 발표했다. 학내문제에 교수회 차원이 아닌 중진 교수들의 성명서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교내 전산망과 대자보 형태로 공개한 문건에서 원로교수모임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교권을 지키기 위해 연일 결의문이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교수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학교 당국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며 "구성원들의 분열과 대학행정의 난맥을 바로 잡을 이사장과 총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동국대는 지난 1학기부터 정년보장 교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공급의 평가와 그에 따른 보수체계 변경 도입을 강행해 왔다. 교수들은 이와 관련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교수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며 반발해 왔다.

또 원로교수모임은 필동병원 매입과 관련한 재단내부의 검찰 고발사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사장과 총장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수습할 일이 있으면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건에는 보광 스님 권기종 정용길 김상현 교수 등을 비롯, 30여 명이 서명했다. **조용수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모향산 전록탕

본 제품은 전 북한 만수무강연구소 약국장이 직접 제조한 신비의 건강식품

보정, 보기 보혈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김일성이 생전에 빠뜨리지 않고 먹었던 35가지 약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맞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월기가 부족한 사람, 수술후나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 전록탕의 효능 ※

<보혈, 보기, 보정, 작용이 탁월하다>

- 적혈구, 백혈구의 생성 활발해져 작용을 한다.
- 중년 남,녀들의 기력강화, 갱년기 장애를 해소시키고 젊음을 찾는다.
- 기를 보하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미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모향산 전록탕 그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모향산 전록탕은 모향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가시오가피"를 북한에서 직수입하여 "동충하초"를 비롯한 우수한 한약재를 "약물동역학적"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동익 박사 허창걸

모향산 전록탕이란...

본 제품은 북한 만수무강연구소에서 최고위급 인물들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 그대로입니다.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모향산 요양소 약국장이었던 허창걸 동의학 박사가 우수한 한약재를 "약물동역학적"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판매원: 룩원 (02) 771-2985 • 제조원: NK내추럴 • 총판대리점모집 (02) 755-9821

덕송총림 수덕사 탁발체험과 함께하는 여름 禪 수련회

禪法の 기운이 충만한 덕송총림 수덕사에서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불교전통 생활의식의 하나였던 탁발의식을 재현합니다. 수행자에게 아مان과 아집을 타파하는 길인 탁발의식을 통해 생명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 베풀고자 하였던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크나큰 원력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차	일 정	기 간	프로그램명	수련비	참가인원	대 상
1 차	7월 20일 - 7월 22일 (수요일-금요일)	2박3일	동국대학교 수련회	5만원	100명	대학생
2 차	7월 27일 - 7월 30일 (수요일-토요일)	3박4일	禪 수련회	7만원	80명	일반인
3 차	7월 31일 - 8월 2일 (일요일-화요일)	2박3일	만일염불회 수련회			신 도
4 차	8월 4일 - 8월 6일 (목요일-토요일)	2박3일	禪 수련회	5만원	80명	일반인
5 차	8월 10일 - 8월 13일 (수요일-토요일)	3박4일	禪 수련회	7만원	80명	일반인
6 차	8월 27일 - 8월 28일 (토요일-일요일)	1박2일	교구신도수련회	2만원		교구신도

※ 궁금하신 사항은 수덕사 중무소로 전화연락 바랍니다.
※ 전화 041)337-6565, 011-1705-4828 / 팩스 041)337-0072
e-mail : tan002@hanmail.net
입금계좌 : 우체국 310060-01-005443 (수덕사 포교국)
※ 자세한 내용은 수덕사 홈페이지 (www.sudeoksa.net)를 참조하세요.